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개별 여성군인과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의 사례

최지은*

1. 총력전과 여성노동력 활용
2.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개별 여성 군인 (1914년 7월~1917년 4월)
3.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
4. 결론

이 글은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을 거치면서 러시아에서 여성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였는가를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쟁의 성격이 변하면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 수행노력(war effort)에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여성이 남성의 영역에 진입한 것은 노동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고, 1914년부터 여성 다수가 개별적으로 군문에 들어섰다. 러시아 여성의 군사참여는 2월 혁명 이후 더욱 발전하면서 1917년 5월 말에 세계 최초의 여성전투부대인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가 편성되기에 이른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이 특이한 전투부대는 남성병사의 사기를 북돋는 임무를 맡았으나 무단이탈과 불복종으로 붕괴되고 있던 러시아 군대의 형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결국 이 여성부대는 임무 실패와 정체성 모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해체되었으나, 이후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기회를 러시아 사회에 제공하였다.

국내 학계에는 여성의 군사 참여와 특히 러시아 여성 군인을 다룬 연구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¹⁾ 이 연구들은 러시아 여성 군인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젠더적, 사회적, 사상적 흐름에서 여성 군인이라는 현상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기, 즉 최초의 총력전을 치른 시기의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보다 제2차 세계대전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학계의 경향과 여성의 군사적 참여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일 것이다. 물론,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의 규모를 볼 때 이들이 러시아 군대나 러시아 여성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결사대대는 최초의 여성전투 부대로 총력전 시대 여성의 군사 참여를 최초로 현실화한 사례이자 이후 여성과 정부 당국

1) 이시연, 「나폴레옹전쟁 시대 러시아의 '여성' 기병장교 두로바」, 『역사학보』, 204호(2009년), 269~313쪽; 류현수, 「제2차 세계대전기 여군의 역할과 위상: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비교 연구」, 『서양사연구』, 제35편(2006년 12월), 131~159쪽; 이종훈, 「스탈린주의의 근대성과 '밤의 마녀들': 1930년대 소비에트 사회의 에토스와 여성 야간 폭격연대 부대원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37호(2010년), 309~338쪽. 또한, 러시아 여성 이외에 여성 군사 참여를 다룬 연구로는 이창신, 「남북 전쟁의 여성사적 접근: 남부 지방 여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8호(1998년), 163~186쪽; 안상준, 「중세 유럽 사회에서 여성의 전쟁 참여: 여성의 십자군 원정을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제18호(2006년 9월), 33~63쪽을 보라.

에게 하나의 예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이 글은 먼저 총력전 시대에 여성이 노동 분야에 새롭게 진출한 상황과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개괄한 후, 러시아 여성의 군사참여 사례를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집단적 군사참여의 사례인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를 다룬 장에서는 부대 편성배경과 작동방식 그리고 실전경험을 논함으로써 여성의 군사적 참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러시아의 전제정과 임시정부 모두 여성을 동원(mobilization)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일러둔다.

1. 총력전과 여성노동력 활용

제1차 세계대전으로 본격적인 총력전(Totaler Krieg; total war) 시대가 시작되었다. 19세기의 전쟁이 제한된 장소에서 비교적 단기간 한 군대와 다른 군대가 맞붙어 군사력을 겨루는 전쟁이었다면, 20세기의 전쟁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떠나 한 국민국가와 다른 국민국가가 총동원되어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발전을 거듭한 과학기술이 프랑스혁명으로 탄생한 여러 사상과 결합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변했다.²⁾

먼저 물적 측면을 보자면, 무기의 개량으로 전투는 대량 살육전 형태를 보였다. 특히 기관총과 가시 철사의 도움으로 방자(防者)는 ‘돌

2) Michael Howard, "Total War: Some Concluding Reflections",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7*(eds. Roger Chickering, Stig Förster and Bernd Grein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376-79.

격 앞으로'라는 구호에 따라 밀고 들어오는 적군을 효율적으로 몰살할 수 있었다. 무기의 화력뿐 아니라 사거리도 높아져 전장이 확대되었고, 이전 전쟁과 비교해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었다. 공간 제약의 해소는 동원에도 해당되었는데, 이제 정부는 더 먼 곳에서 병력과 군수물자를 끌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 깊숙한 곳을 연결해주는 물줄기와 같았던 철도망과 전신이 이를 현실화했다. 만약 철도가 끊임없이 물자와 병력을 전방에 보내지 않았다면 전쟁의 대량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³⁾ 군대 병력 자체도 대량화 되었는데, 국민 국가가 발전하면서 직업군인이 아닌 국민 그 자신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유럽에 징병제가 도입된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쟁 자체의 규모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우는 군대는 “국민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신민”이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시민으로서 병사들은 군복무를 통해 그리고 후방에 남은 민간인들은 전시 산업복무를 통해 시민적 의무를 이행했다.⁴⁾

그러나 1914년 8월에 전선으로 향하는 유럽 각국의 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전국 정부들도 이 전쟁이 대전쟁(Great War)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6세기부터 18세기 내내 전쟁을 거듭하며 근대국가로 나아가던 유럽 국가들이 경제, 정치적 이유에서 유럽 대륙 내 무력충돌을 줄였던 시기가 바로 19세기였다. 비록 어느 근대국가도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드는데(Wars make nations, nations make wars)”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군사적 폭력은 유럽 대륙

3) Martin van Creveld, “Technology and War I: to 1945”, *The Oxford History of Modern War*(ed., Charles Townshe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215~217.

4) Roger Chickering, Stig Förster, “Are We There Yet?: World War II and the Theory of Total War”,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7*(eds. Roger Chickering, Stig Förster and Bernd Grein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4.

외부로 향했고 그 결과 유럽인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 세기를 보낼 수 있었다.⁵⁾ 19세기 동안 유럽대륙에서는 단 세 번의 전쟁만 일어났는데, 유럽 대륙 중심에서 발생한 프로이센-오스트리아전쟁(1866년)과 프로이센-프랑스전쟁(1870년~1871년)은 비교적 빨리 종전되었으며, 러시아와 오스만튀르크 연합군이 격돌한 크림전쟁(1853년~1856년)은 유럽 외곽에서 치러졌다.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이 이 세 전쟁에 적용되었음에도 전쟁 기간과 전장 위치 때문에 당대인은 전쟁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⁶⁾ 둘째, 미국 내전(1861년~1865년)에서 대규모로 군대가 동원되고 산업 생산 및 보급품 수송이 전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어느 한 쪽이 참패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되는 양상이 드러났으나 유럽인들은 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를 단순히 미국의 특수한 현상으로 치부했다.⁷⁾ 미국에 시찰을 간 유럽인 관찰자는 미국 군대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북부나 남부 어느 한 편에 동조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또한 파견된 직업군인들은 대개 포병장교나 공병장교였기에 더 일반적인 문제, 가령 징집과 통신 및 보급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다.⁸⁾

따라서 1914년에 “8월의 포성”이 울렸을 때 각 교전국 정부들은 결전(decisive battle)으로 승패를 단시간 내에 결정지으리라고 생각

5)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pp.70~76.

6) 크림전쟁에서 장전을 쉽게 하고 안정된 탄도를 얻을 수 있도록 개량된 신형탄환인 미니에 탄환이 사용되었다. 또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얇드려 썩’을 가능하게 한 드라이저총(needle gun), 즉 후장식 소총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했으며,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는 지멘스-마르틴 방식으로 개량된 소형 후장식 강선포로 집중 포화를 퍼부으며 두 달 만에 파리를 제압했다.

7) 당대 유럽인들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는 프로이센의 전쟁 방식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본받고자 했으나, 교착상태를 보인 크림전쟁과 미국내전의 의미는 등한시했다. William H. McNeil(신미원 역), 『전쟁의 세계사』, 이산, 2005년, 338쪽.

8) Jay Luvaas, *The Military Legacy of the Civil War: The European Inheritance*(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8), pp.12~13.

했다. 또한 단기전을 예상했기 때문에 독일의 슬리펜 계획처럼 작전은 존재했을지언정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계획은 어느 교전국에도 없었다. 어느 나라도 대량 징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군수 산업과 전체 산업 생산에 가져오는 부담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1914년 가을부터 전쟁은 전방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후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2의 전선이 되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적 측면에서 후방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화기의 사거리가 높아지면서 후방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만큼 민간인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교전국 정부는 적군의 후방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측면은 총력전의 성격 그 자체에 있었다. 개별 전투에서 적군을 압도하더라도 적국의 전쟁 수행 기구(war machine)를 파괴하지 못하면 전쟁은 계속될 터였다. 전쟁 수행 기구를 작동시키는 후방은 전방의 군인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핵심 기지와 같았다. 경제 분야에 동원되어 간접 전투를 수행하는 후방의 민간인은 산업 ‘전사’였다. 전방에서 적군을 살상하는 문제만큼 후방의 경제를 군수 생산에 맞추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원을 배분하느냐에 20세기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었다.⁹⁾

따라서 경제 체계 자체가 전쟁에 맞추어 개조되어야 했다. 각 국 정부는 군수산업을 비롯한 중공업에 1차적으로 자원을 투입했으며, 경제인구가 대규모로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나갔다. 자연스럽게 전선으로 떠난 남성의 자리를 여성이 채우게 되었는데, 교전국 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여성 노동력 증가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전시 여성 노동력 증가에 관해 특히 주목 할 사안은 이전에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산업분야에 여성이 고용되기 시작했다는

9) John Horne, "Labor and Labor Movements in World War I", *The Great War and the Twentieth Century*(eds., Jay Winter, Geoffrey Parker, and Mary R. Habeck) (New Haven: Yale University, 2000), pp.193~194.

점이다. 여성노동자는 피혁산업과 화학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금속산업에도 대거 투입되었다. 여성 노동력 활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으나 어느 교전국도 늘어난 전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여성과 유소년 고용을 허가해 달라는 기업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¹⁰⁾ 전쟁 이전에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서유럽 국가 보다 높았던 러시아에서도 전쟁 동안 여성 노동자는 더욱 늘어났다. 1913년과 1917년 사이에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전체 여성 노동자는 7.6%의 증가율을 보였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특히 1913년과 1917년을 비교할 때 금속산업은 2.7%에서 20.3%로 목재산업은 1.1%에서 20.7%로 여성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¹¹⁾ 물론 페트로그라드의 사례를 러시아 주요 대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 산업지대가 유럽러시아 지역에 분포되어있다는 점과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군사적으로 동원된 남성 병력의 83%가 유럽러시아인 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러시아 주요 산업도시에서 전시 여성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¹²⁾

10) 여성 노동력 활용에 반대한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에서 농민을 제외한 다른 계급 여성의 고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프랑스인이 대부분이 모성 보호를 이유로 여성의 군수산업 투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딩 전투를 위해 후방에 남아있던 남성이 추가로 징집되자 여성 노동 투입은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1914년과 1918년 사이에 영국에서 금속산업 종사 여성노동자는 2.49배 증가했으며,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3.19배 증가했다 Margaret H. Darrow, *French Women and the First World War*(Oxford: Berg, 2000), p.170, 177; Gail Braybon, *Women Workers in the First World War*(London: Routledge, 1989), pp.45~46; 신행선, 「제1차 세계대전 시기 프랑스 여성의 전쟁 동원과 역할, 1914-1918」, 『서양사론』 제101호, 한국서양사학회, 2009, 102~107쪽.

11) З. В. Степанов, *рабочие Петрограда в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октябрьского вооруженного восстания* (Москва, 1965), стр. 34~35.

12) 1914년에 러시아 제국 전체 인구의 72%가 유럽러시아에 거주했다. Stanislas Kohn, "The Vital Statistics of European Russia during the World War", *The Cost of the War to Russia*(New York: Howard Fertig, 1973), p.13.

여성 노동력의 양적 상승이 반드시 질적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여성 노동자의 위상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혹자는 전시에 여성 노동력 수요가 증대했기 때문에 이들의 명목임금도 전쟁 이전에 비해 상승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군수 산업에서 일하던 여성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영국과 프랑스의 여성 노동자를 연구한 수잔 그레이즐(Susan R. Grayzel)은 군수공장의 여성 노동자가 다른 여성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¹³⁾ 반면에 혁명기 전후의 러시아 노동자를 연구한 영국 역사가 스티브 스미스(Steve A. Smith)에 따르면, 페트로그라드의 군수 산업 여성 노동자가 다른 산업 여성 노동자에 비해 같은 노동 조건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1916년 페트로그라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105루블 이었고, 군수산업 여성 노동자는 한 달에 40루블을 받았다. 한편, 직물 산업에 종사하던 반(半)숙련 여성노동자는 한 달에 49.3루블을 받았다. 문제는 이 여성 노동자가 받던 49.3루블이 1914년 7월에 받던 임금의 90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데에 있다.¹⁴⁾ 군수산업에 투입된 여성노동자 다수가 신참이 아닌 이직한 노동자였다는 사실과 군수산업에 신체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수산업 여성노동자가 단순히 이 산업에서 일했다고 해서 높은 임금을 보장받지는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군수 산업 직종 여성 노동자가 다른 산업의 미숙련 분야 여성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군수산업의 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명목 임금보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13) Susan R. Grayzel, *Women and the First World War*(Essex: Pearson, 2002), p.29.

14) Steve A. Smith, *Red Petrograd: Revolution in the Factories, 1917-18*(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p.47.

물가상승은 모든 교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러시아에서는 특히 심각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14년과 1915년에는 천천히 그리고 1916년에는 급격히 하락했다. 실질임금 하락은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치명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보통 비숙련 직종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14년에 페트로그라드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50%정도였으며, 여성 노동력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전쟁을 겪으면서 더 커졌다. 1914년에 1.96루블 차이가 나던 것이 1917년 초에 2.34루블로 더 벌어졌다. 금속공장이나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1914년과 1915년에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더라도 1916년에 치솟는 생필품 가격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¹⁵⁾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 여성 노동력 증가가 반드시 여성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의미하지 않았다. 인구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러시아에서 여성 대부분의 삶이 전쟁 동안 더욱 팍팍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여성은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속공장과 화학공장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이었다. 직무도 다양해져서, 여성은 전화 교환수, 짐마차꾼, 전차 차장, 트럭 운전자, 우편 집배원, 정비공이 될 수 있었다.¹⁶⁾ 변화는 농촌에서도 일어났다. 1916년에 전체 소작농장 노동력의 72%가 여성이었고, 지주토지 노동력의 58%가 여성이었다.¹⁷⁾ 사실, 전쟁 이전에도 여성 농민의 노동량은 결코 남성 농민에게 뒤지지 않았으며 노동 강도도 비슷했다. 모두가 빈곤한 삶

15) *Ibid.*, pp.47~48.

16) Richard Stites,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Russia: Feminism, Nihilism, and Bolshevism, 1860-1930*(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281.

17) John L. H. Keep, *The Russian Revolution: A Study in Mass Mobilization*(New York: W.W. Norton & Company), p.32.

을 사는 러시아 농촌에서 여성을 배려한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실상 여성농민들은 가사일 뿐만 아니라 곡물 수확과 쟁기질 같이 들판에서 하는 일도 맡아야 했다. 그럼에도 특정 영역, 예를 들어 쟁기질 할 곳을 지정하거나 전체 농업 계획을 짜고 경영하는 일은 배타적인 남성의 영역이었다. 이제 전쟁으로 인력이 줄어들자 농촌에서 여성 농민은 남성 농민에게 권위를 부여하던 작업까지 도맡을 수밖에 없었다.¹⁸⁾ 가계를 꾸리고 한 해 농사 계획을 세우는 여성 농민의 모습은 전쟁 이후 생소하지 않은 장면이 되었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에서 러시아 노동계급 여성들은 새로운 작업을 맡으면서 부지불식간 전쟁 수행 기구를 돌리는 중요한 축이 되었다. 전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이 총력전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주장은 1917년 2월에 혁명이 일어난 뒤에 여성의 전시 노동이 여성 참정권 확보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¹⁹⁾

요컨대 총력전의 특성 때문에 러시아 여성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러시아 여성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한 사례는 후방전선에 한정되지 않았다.

18) Alfred G. Meyer, "The Impact of World War I on Russian". *Women's Lives, Russia's Women: Accommodation, Resistance, Transformation*(eds, Barbara E. Clements, Barbara A. Engel and Christine D. Worobe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217.

19) Ann Taylor Allen, "Women and the First World War, 1914-1918", *Women in Twentieth Century Europe*(NY: Palgrave Macmillan, 2008), p.20.

2.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개별 여성 군인(1914년 7월~1917년 4월)

러시아에서 어떤 직무로든 전방에서 복무하는 여성의 모습은 생경하지 않았다. 혁명 이전에 자비의성모동정회 간호사(сестры милосердия)로 불리던 러시아 여성 종군간호사²⁰⁾들은 1914년 이후 양적, 질적 변화를 경험했다. 전쟁 초기부터 각 교전국은 부족한 의무 인력을 채우기 위해 여성 간호사를 대량으로 모집했고, 러시아의 경우 전(全)러시아젠프스트보연맹의 주도로 적십자에 소속되어 전방에서 복무할 간호사를 모집했다.²¹⁾ 간호사 복무 지원자는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어야 했다. 일단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여성들은 지역 적십자에서 의료 훈련을 받은 후 전방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상류계급과 노동계급을 망라해 다양한 여성들이 전선 간호사 복무를 지원했고 1916년 즈음에 러시아의 간호병력은 25,000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²²⁾ 전선에서 행하는 의무 복무는 때때로 전투 복무만큼 위험했는데, 이는 간호사들에게 기본적인 의무 업무만 주어질 수 없던 현실 탓이었다. 원칙적으로 간호사는 전선으로부터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동식 야전 병원에서 복무해야 했으나 간호사들은 위생병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들것 운반부 역할도 맡았고 심지어 무인지대(No Man's Land)에 쓰러져 있는 부상병을 안전한 곳으로 빼내는 일

20) Joshua A. Sanborn, *Drafting the Nation: Military Conscription and the Formation of a Modern Polity in Tsarist and Soviet Russia, 1905-1925*(Chicago, diss. 1988), pp.402~403.

21) Peter Gatrell, *Russia's First World War: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London: Pearson, 2005), p.41.

22) Christine E. Hallett and Alison S. Fell "Introduction: New Perspectives on First World War Nursing", *First World War Nursing: New Perspectives*(eds., Alison S. Fell and Christine E. Hallett) (NY: Routledge, 2013), p.2.

에도 투입되었다.²³⁾ 따라서 간호사로 복무하던 여성들이 전투원으로 직무를 바꿨던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았다. 개별 여성군인으로 언론에 등장한 여성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 간호사로 전선에 온 뒤에 전투원이 되었다. 미국인 여성 저널리스트로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여성군인들을 직접 취재한 레타 도어(Rheta Childe Dorr)에 따르면, 적십자 간호사로 복무하던 한 여성은 “러시아를 위해 여성에게는 남성의 상처에 붕대를 감는 것 이상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전투원이 되기도 하였다.²⁴⁾

20세기 초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교전국에서 여성의 전투원 복무는 불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금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장을 해서 정체를 속이고 전선에서 복무했던 여성이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종종 발견되고는 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전투원으로 복무했던 여성이 많았고, 당대인들이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동부전선에서 간호사로 복무했던 영국여성 플로렌스 팜버러(Florence Farmborough)는 “여성군인과 소년군인은 러시아 군대에서 특이한 광경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성 군인 몇몇과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²⁵⁾ 팜버러처럼 이미 당대 정기 간행물과 관찰자들이 종종 여성군인의 행적을 전하고는 했는데, 여성군인이라는 소재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에 이들을 다른 글은 대체로 사회, 정치적 논의보다는 여성 군인의 용맹함이나 신변잡기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군인과 관련해 논쟁이 될 만한 이야깃거리, 예를 들어

23) Laurie S.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Russia's Women Soldiers in World War I and the Revolution*(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p.26.

24) Rheta Childe Dorr, *Inside the Russian Revolution*(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7), p.56

25) Florence Farmborough, *With the Armies of the Tsar: A Nurse at the Russian Front in War and Revolution, 1914-1918*(New York: Cooper Square Press, 2000), p.300; Grayzel, *Women and the First World War*, p.137.

여성군인에게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나 또는 여성군인이 적군에게 받을 학대 같은 쟁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²⁶⁾ 그럼에도 정기간행물은 회고록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여성 통보(женский вестник)』와 『여성의 주장(женское дело)』 및 『여성과 전쟁(женщина и война)』 등 여성 및 페미니즘 계열 잡지가 여성군인에 관한 기사를 다수 실었다는 사실은 당시 개별 여성군인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는 않았음을 암시한다.²⁷⁾ 한편, 이들 언론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역사가들은 이를 통해 개별 여성군인에 관한 대략적인 수치를 이끌어냈다. 역사가 앤 엘리엇 그리즈(Ann Eliot Griese)와 리처드 스타이츠(Richard Stites)의 계산에 따르면 1914년부터 1917년 5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군 복무를 했던 여성은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성들은 대개 남장을 하고 남성 친지의 입영 통지서 또는 의학 진단서를 갖고 입대했기 때문에 언론에 등장한 여성군인들은 주로 부상을 당한 뒤 성정체성이 발각되었던 여성들이었다. 만약 자신의 원래 성정체성이 숨긴 채 전장에서 사망한 여성군인을 고려한다면 개별 여성군인의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²⁸⁾

그러나 때때로 여성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입대를 했던 경우도 존재한다. 비록 러시아 제국군은 여성의 입대를 법으로 금지했기 때

26)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기 페트로그라드에서 발행되었던 잡지 『전쟁(Война)』의 여성군인 특집호, “Женщины герои на войне” «Война» no. 24 (Петроград: 1915)를 보라.

27) 여성 정기간행물은 정치 성향에 따라 여성군인에 관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급진적 페미니즘 저널인 젠스키 베스트닉은 여성군인에 찬성했지만, 상류계급 여성을 위한 저널인 젠스코예 젤로는 여성군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Meyer, “The Impact of World War I on Russian”, p.220.

28) Ann Eliot Griese and Richard Stites, “Russia: Revolution and War”, *Female Soldiers: Combatants or Noncombatant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ed. Nancy Loring Goldman) (Westport: Greenwood, 1982), p.67.

문에 여성은 정식으로 입대할 수 없었고 남장을 한 것이 발각될 경우 원칙적으로 제대해야 했음에도 전선의 혼란과 인명 부족 심화로 여성 군인의 복무는 해당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졌다.²⁹⁾ 게다가 상류계급의 구성원은 자신의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입대하기도 하였다. 예브게 니야 샤흐스카야(Евгения М. Шаховская) 백작부인은 비행사 자격증을 소지했던 여성으로 군대에서 현역 비행사로 복무했으며, 하르코프(Харьков)에 살던 한 부유한 여성은 자기가 타던 승용차를 군대에 기부한 뒤에 입대해 정찰대에 배속되었다.³⁰⁾ 한편,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 집단인 카자키(казаки)들은 자신의 부대에 남장을 하지 않은 여성을 받아들이고는 했다. 카자키의 상무적 문화가 남녀 모두가 용감함과 승마술과 전투기술을 익히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 원정에 나선 카자키 남성을 대신해 여성들이 공사를 맡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카자키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보다 자유로웠고 공적 영역에 참여할 사회적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카자키 전통으로 인해 카자키 부대는 대체로 여성군인을 쉽게 받아들였고, 카자키 출신 여성들 역시 남성 부대에 수월하게 동화되었다.³¹⁾ 몇몇 유명한 카자키 여성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간호사로 복무하다 예카테리노슬라프(Екатеринослав)에서 자원병으로 입대해 복무했던 쿠반 카자키의 일원, 엘레나 초바(Елена Чоба)는 장검과 단검을 능숙히 다루는 능률한 기수였다. 또 다른 여성 마르가리타 코콥초바(Маргарита Р. Коковцова)는 자신의 말을 데리고 입대한 카자키의 일원이었다. 승마술이 매우 뛰어났던 코콥초바는 기마 정찰대에서 복무했고 적진을 오가며 소규모 접전을 벌였다.³²⁾ 또 다른 유명한

29) Maria Botchkereva(as set down by Issac Don Levine), *Yashka: My Life as Peasant, Exile and Soldier*(London: Frederick A. Stokes Company, 1919), p.74.

30) Meyer, "The Impact of World War I on Russian", pp.219~220.

31) Shane O'Rourke, "Women in a Warrior Society: Don Cossack Women, 1860-1914", *Women in Russia and Ukraine*(ed., Rosalind Marsh)(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46~50.

사례는 쿠반 카자키 출신의 마리나 유를로바(Марина Юрлова)이다. 유를로바는 14살에 캅카즈에 있던 한 카자키 연대에 입대했다. 유를로바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입대했지만 이내 전쟁의 참혹함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유를로바는 동료 병사들에게 충실했으며 전투에 용맹하게 임한 덕분에 성 게오르기 십자 훈장을 두 차례 수여했다.³²⁾

개별 여성군인으로 가장 이름을 날린 여성은 시베리아 농민 출신의 마리아 보치카료바(Мария Л. Бочкарёва)였다. 보치카료바는 보통의 농민 여성처럼 과중한 노동과 남성 가족의 학대로 비참하게 살던 여성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치카료바는 “전쟁이라는 부글부글 끓는 솥에 그 불길로 세례를 받고 그 용암으로 타버리기를 갈망했”고 입대를 결심했다.³⁴⁾ 보치카료바는 자신이 살던 마을 근처에 주둔하던 톱스크 제25예비대대를 찾아갔지만, 지휘관은 여성입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이 지휘관은 여성이 입대신청을 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황제에게 입대허가를 청원하는 전보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황제는 보치카료바의 입대를 허가하는 답장을 보냈고 이로써 보치카료바는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있었다. 물론 황제로부터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는 주장은 보치카료바의 회고록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치카료바를 밀착 취재한 레타 도어는 보치카료바의 입대 과정에 관해 간단히 “시베리아 연대의 남성들은 보치카료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했지만, 보치카료바는 입대할 방법을 찾았고 허가를 얻었다”라고 전했다.³⁵⁾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보치카료바가 자신의 회

32) “женщины-герой на вой не” «вой на» No. 24 (Петроград: 1915), стр. 3, 6.

33) Marina Yurlova, *Cossack Girl*(Somerville: Heliograph, Inc., 2010), p.11, 66, 67, 101.

34) Botchkereva, *Yashka*, p.65.

35) Dorr, *Inside the Russian Revolution*, p.54.

고록에서 극적 요소를 더하기 위해 황제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구를 지어냈을 가능성이며 둘째, 만약 보치카료바가 황제에게 허가를 받았음에도 도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터뷰 당시 보치카료바가 농민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즉, 황제는 2월 혁명 이후 억압하는 전제정의 표상이 되었고 보치카료바는 임시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허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보치카료바의 행적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가 어떠한 동기로 입대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치카료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애국심”을 거듭 입대동기로 지목했다. 그러나 보치카료바가 입대 당시 느꼈다고 주장하는 “애국심”에 관해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해야 한다. 먼저, 20세기에 러시아 농민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러시아인이 아닌 자기 지역 주민으로 규정했다.³⁶⁾ 수도에서 일어난 지식인 계급의 전쟁 지지 시위는 전체 러시아인의 정서를 대표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의 군사사가 조슈아 샌본(Joshua Sanborn)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징집 거부 시위가 때때로 일어났으며 어떤 시위는 대규모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³⁷⁾ 농민병사 대부분은 체념에 가까운 감정으로 입대를 받아들였고 전쟁을 수행하는 반대급부로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맹의 여성농민인 보치카료바가 근대적 애국심으로 입대를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전쟁 프로파간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에도 전제정의 중앙권력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는 지역은 수도와 도시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파간다는 농촌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³⁸⁾ 실제로 보치카료바를

36) 대표적으로 Aleksei A. Brusilov, *A Soldier's Notebook, 1914-1918*(London: 1930), p.37, 39; Victor M. Chernov, *The Great Russian Revolution*(Yale University Press, 1936), pp.155~156을 보라.

37) Sanborn, *Drafting the Nation*, p.78.

취재한 도어와 또 다른 전쟁 특파원 베시 비티(Bessie Beatty)는 그녀의 입대 동기로 애국심이 아닌 개인적 동기를 지목했다. 이들은 보치카료바를 직접 취재했음에도 보치카료바 자신이 회고록에 쓴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³⁹⁾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보치카료바의 “애국심”은 차르에게 바치는 정교적(orthodox) 충성과 공동체에 느끼는 원초적 애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⁰⁾ 물론 영국의 역사가 후베르투스 얀(Hubertus F. Jahn)이 지적했듯이, 한 개인 또는 집단의 애국심은 원초적 단계에서 근대적 단계로 바뀔 수 있으며 그 변화가 반드시 단선적이거나 뚜렷하지는 않다.⁴¹⁾ 그럼에도 보치카료바가 입대 전에 느낀 “애국심”은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고 혁명을 포함해 다양한 정치경험을 한 뒤 이 회고록을 쓸 당시에 느낀 애국심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분명한 사실은 입대 동기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보치카료바가 입대 자체를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황제의 입대 허락은 보치카료바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보치카료바가 남성 부대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증서 노릇을 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보치카료바 자신도 군대에 동화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고 위험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동료들과 장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처음에 “바바(баба)”⁴²⁾의 입대를 비웃던 동료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인지대에 들어가 부상병을 구출해 나오는 보치카료바의 모습에 감탄했다.⁴³⁾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38) Keep, *The Russian Revolution*, pp.13~14.

39) Bessie Beatty, *The Red Heart of Russia*(New York: The Century Co., 1918), p.92; Dorr, *Inside the Russian Revolution*, pp.51~52.

40) Allan Wildman, *The Old Army and the Soldiers' Revolt: March-April 1917, vol. 1, of The End of the Russian Imperial Arm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37.

41) Hubertus F. Jahn, *Patriotic Culture in Russia during World War I*(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p.4.

42) 바바(баба)는 무식한 아낙네를 일컫는 구어체로 여성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보치카료바의 계급은 남성 부대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이 농민 출신인 러시아 병사들은 힘든 노동을 하는 여성의 모습에 익숙했다. 오히려 보치카료바의 입대에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대개 상류계급 출신의 고위장교들이었고 이들은 전선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⁴⁴⁾ 혁명 이전의 러시아에서 계급이 젠더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대체로 노동계급은 남녀가 모두 고된 노동을 했고 상류계급은 남녀가 모두 유산계급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⁴⁵⁾ 따라서 남성 병사들은 같은 계급 출신인 여성 병사보다 다른 계급 출신인 장교들에게 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⁴⁶⁾

더 나아가 이러한 러시아의 사회적 맥락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러시아에 가장 많은 여성들이 전선에서 비전투원 또는 전투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당장에 여성 군인들 스스로도 군복무 자체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레타 도어에 따르면, “여성 군인들은 전투가 그들이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아닐뿐더러 가장 불쾌한 일도 아니며 [...] 전투가 비록 조금 더 위험하기는 해도 수확기의 들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덜 힘들다고 말했다.”⁴⁷⁾ 이러한 사실은 개별 여성군인 뿐만 아니라 1917년 5월 이후 편성되었던 여러 여성 전투부대와 내전 동안 백군과 적군(赤軍)에 가담하여 싸웠던 여성군인들 대부분이 노동계급 출신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⁴⁸⁾ 물론 여성군인의 용맹함은 오로지 계급 배경에서만 비롯되지는 않았다. 여성군인들은 자신이 전투원이 될 자격이

43) Botchkareva, *Yashka*, pp.65~66, 71~82, 99~100.

44) *Ibid.*, pp.85~86.

45) Elizabeth A. Wood, *The Baba and the Comrade: Gender and Politics in Revolutionary Russia*(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16.

46) Wildman, *The Old Army and the Soldiers' Revolt*, pp.34~35.

47) Dorr, *Inside the Russian Revolution*, p.78.

48) Griese and Stites, *Female Soldiers*, p.67.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자주 어려운 임무를 자처했고 선두로 돌격하기도 했다. 남장을 한 여성군인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이 탄로 나지 않도록 더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며 부상으로 인한 의학 진단을 피하고자 더 신중하게 전투에 나섰을 것이다. 더욱이 여성군인은 거의 모두가 자원병이었기 때문에 남성 동료보다 더 열정적이었으며 잘 훈련 받았고 자기희생적이었다.⁴⁹⁾

이러한 개인적 노력과 계급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많은 여성군인들이 무공을 인정받았다. 보치카료바 역시 제4급, 3급 성 게오르기 십자 훈장과 제2급 황금훈장을 비롯해 여러 개의 무공 훈장을 수여했으며, 상등병으로 진급해 소대를 맡기도 했다.⁵⁰⁾ 혁명 이전에 보치카료바는 하급 부사관으로까지 진급했으며 용맹한 여성군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보치카료바는 1917년 초까지 사교계 여성들의 이야깃거리나 ‘애국심’을 알리는 언론의 소재가 되면서 자신의 유명세를 치렀다. 그러나 2월 혁명 이후 보치카료바는 ‘개별 여성 군인’ 이상의 존재가 있었는데, 이는 보치카료바가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 편성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했으며 그 자신이 대대의 지휘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3.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는 2월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많은 사회적 실험 중 하나였다.⁵¹⁾ 총력전에 혁명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사

49)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33.

50) Botchkareva, *Yashka*, p.98, 102, 126.

51) 혁명 이전, 즉 제정 러시아에서 여성 군인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이는 단순히 양 체제의 여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니었다. 총력전 시대가 열리기 전에 교전국은 남성 병력만으로 몇 차례 결전을 벌여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었고,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을 동원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건이 결합되어 러시아 사회는 격변에 휩싸였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틈새를 통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 여성의 군사 운동은 다른 교전국에서도 존재했으나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러시아였다.⁵²⁾ 더욱이 오직 러시아에서만 여성의 전투원복무가 공식적으로 가능했고 여성전투부대가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 배경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성부대 편성배경을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혁명 직후 러시아 여성조직 및 개별여성들은 여성의 군사적 참여에 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여성전투부대라는 쟁점을 공론화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전투부대는 혁명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시민적 애국심 발휘 및 조국 수호와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러시아여성협의회는 1917년 5월 26일에 열리는 대회를 위해

이러한 전쟁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군사적) 활용에 대한 공적 논의 자체는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 제국군은 여성 입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군인이 될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52)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교전국에서 여성의 군사적 참여는 보조병과에 국한되었다. 의무병과를 제외하고 여성들은 보통 통신, 수송, 야전취사 등을 담당했는데 이들을 활용한 목적은 여성이 전선의 자질구레한 일을 맡음으로써 남성이 더 효율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보조병과에서 복무한 여성은 영국은 90,000명, 독일은 17,000명, 미국은 12,185명이었다. 이러한 공식 참여 외에 여성들의 자체적 군사 운동도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존재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스스로와 조국을 방어할 권리로 여성 군사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미국여성방어연맹(American Women's League for Self-Defence)을 비롯한 여러 여성 조직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소총 사용법 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Melissa K. Stockdale, "My Death for the Motherland Is Happiness: Women, Patriotism, and Soldiering in Russia's Great War, 1914-1917",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9, (2004. 2), p.83; Kimberly Jensen, *Mobilizing Minerva: American Women in the First World War*(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pp.39~44.

“우리[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조국이 위기에 빠진 이 순간에 조국을 돕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발휘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 시민의 의무가 러시아 여성에게 [...] 자원병으로 군인의 대오에 들어가라고 요구합니다”라고 쓰인 호소문을 배포했다. 또 다른 여성조직인 여성군사분견대조직위원회 역시 비슷한 논조를 드러냈다. 이 조직은 전쟁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군대의 사기를 일깨우고 “러시아의 방어자”가 되게끔 여성을 전선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⁵³⁾ 여성조직이 보기에, 지난 3년간 여성들이 보여준 전쟁수행 노력과 더불어 여성의 군사참여가 보편선거권을 여성에게 주어줄 것만 같았다. 1917년 3월 19일에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40,000명이 벌인 참정권 요구 시위를 여성 기마대가 호위하는 모습은 여성 시민권과 여성 군사운동이 별개의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⁵⁴⁾ 보치카료바가 여성군인의 모범사례로 여성전투부대의 잠재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부대 편성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이러한 여성조직과 개별여성들이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공적인 장소에서 빈번히 언급했기 때문에 대중은 여성부대라는 쟁점에 익숙해졌고 부대가 편성되었을 때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둘째, 혁명 이후 전제정을 대체한 임시정부는 총력전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도 권력도 갖지 못했다. 이중권력 체제에서 명목상의 권력만 갖고 있던 임시정부는 소비에트의 동의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임시정부는 혁명 이후 전방과 후방에서 무질서가 만연하게 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고 전쟁을 끝낼 경우 병사들이 무력을 이용해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새로운 러시아를 재건할

53)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p.68~69.

54) Olga Shnyrova, “Feminism and Suffrage in Russia: Women, War and Revolution, 1914-1917”, *The Women’s Movement in Wartime: International Perspective, 1914-19*(eds., Alison S. Fell, Ingrid Sharp) (NY: Palgrave Macmillan, 2007), p.131.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연합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전제정이 다른 열강과 맺은 전쟁 협정을 포함하는 기존의 전쟁 목표와 계획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전제정이 1916년 11월에 샹티(Chantilly) 회담에서 연합국에게 약속한 공세를 수행하기로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가 예정대로 봄에 공격을 시작하기를 원했으나 미하일 알렉세예프(Михаил В. А. Алексеев) 총사령관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우여곡절 끝에 6월로 공세 일정이 잡혔다.⁵⁵⁾ 이는 분명 현실적인 결정이었으나 동시에 근본적 한계를 지닌 결정이기도 하였다.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병사들 대다수가 이미 전의를 상실한지 오래이며 혁명 직후 군대는 말 그대로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3월1일에 발표한 명령 제1호(Приказ No. 1)가 전선 부대에 자체 적용되면서 부대 내 무단이탈과 불복종이 만연했다. 여전히 부대에 남아 있던 병사들 대부분도 새로운 정부가 강화협정을 맺을 때 까지만 전선을 지키겠다고 생각했고 공세에 참여할 마음은 없었다. 임시정부의 전쟁 정책이 후방의 대중에게 알려져 4월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공세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전쟁부 장관에 임명된 알렉산드르 케렌스키(Александр Ф. Керенский)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공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다.⁵⁶⁾ 따라서 임시정부는 6월 공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상이군인 부대와 여성부대가 논의되었다.

6월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 임시정부는 1916년의 브루실로프 공세를 모범으로 삼았다. 1916년에 남서부 전선 총사령관인 알렉세이 브루실로프(Алексей А. Брусилов) 장군은 공세를 감행하면서 새로운

55) Alexander Kerensky, *Russia and History's Turning Point*(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65), pp.253~258.

56) *Ibid.*, p.267.

형태의 전술, 즉 돌격전술을 펼쳤다. 침투전술(infiltration tactics; Hutier tactics)이라고도 불리는 돌격전술은 프랑스 군대에서 처음 사용된 전술로 소수 정예 보병으로 강습대(Sturm β trupp; storm troops)를 구성하여 적진의 약한 부분을 단시간에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다. 처음에 이 전술은 방대한 전장을 가진 동부전선에서 사용되었다. 참호전과 기동전이 뒤섞여 나타난 동부전선에서 기병전투와 총검을 이용한 백병전이 중요한 공격 방식이었고⁵⁷⁾ 장교들은 방대한 전장에 적용해볼 전술을 비교적 유연하게 선택하고 시도할 수 있었다.⁵⁸⁾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돌격전술이었고, 러시아 제국군은 보병중대에 배속된 포병부대와 보병·소총연대에 배속된 척탄소대로 강습대를 구성했다.⁵⁹⁾

그런데 이 돌격전술 및 강습대 개념이 1917년 러시아에서는 광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독일은 특수부대인 강습대(Sturm β trupp)와 다른 부대에 선봉에 서서 돌격하는 부대, 즉 돌격대(Sto β trupp; shock troops; assault troops)를 구별한 반면에 러시아는 이 두 개념(штурмовые части, ударные части)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⁶⁰⁾ 따라서 6월공세의 핵심 전략이 될 “돌격”(ударничество)전술은 강습대 뿐만 아니라 심지어 후방의 자원병으로 구성된 돌격대가 수행할 터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이후 행보를 살펴보면 1917년 봄부터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편성된 돌격대와 결사

57) Igor' V. Narskii, “The Frontline Experience of Russian Soldiers in 1914-16”, *Russian Studies in History*, Vol. 51, (2013, Spring), pp.34-36.

58) Timothy C. Dowling, *The Brusilov Offensive*(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xvi.

59) Svetlana A. Solntseva, “The Russian Army’s Shock Formations in 1917”, *Russian Studies in History*, Vol. 51, (2013, Spring), p.50.

60) 따라서 러시아의 돌격대(ударные части)는 강습대, 선봉부대인 돌격대, 혁명대대, 결사대대를 모두 일컫는다.(ударные батальоны, батальоны смерти, дружны смерти, части смерти, революционные батальоны, штурмовые батальоны, ударники)

대는 특수부대라기보다 선봉부대에 가까웠으며, 돌격대라는 이름은 일종의 명예 칭호 노릇을 했다.⁶¹⁾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개념은 돌격대라는 명칭을 단 모든 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돌격대 개념은 2월혁명 이후 비(非)군인출신 관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 그 이유는 돌격전술이 혁명정신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처한 군사적 약점을 해결해줄 방안처럼 보였다는 데에 있다.⁶²⁾

그러나 전선의 병사들은 돌격대 편성에 반대했다. 공세에 나설 의지도 없는 병사들 중에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을 자원자도 별로 없었다. 러시아 작가인 빅토르 쉬클롭스키(Виктор Б. Шкловский)가 남서부전선에 코미사르로 파견되었을 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전선의 병사들은 높은 급료와 특권을 받는 혁명대대가 군대의 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부대를 감찰하러 온 경찰부대 같다고 말했다.⁶³⁾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돌격전술에 성공하더라도 그에 뒤따른 대규모 공격이 없다면 전체 작전은 실패할 터였다. 그러나 규율과 사기 그리고 군수품도 심각하게 부족했던 1917년의 러시아 군대가 6월 공세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임시정부는 자신이 처한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군대에게 모범을 보여줄 부대로서 돌격대를 편성하고자 했다.⁶⁴⁾ 임시정부가 강습대가

61) O. A. Владимирович, “Организация, тактика и подготовка штурмовых частей в Перв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1915–1917 гг.)”,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No. 8, (2010), стр. 3–6.

62) 예를 들어 1917년 4월 29일 통상은행위원회의 회원 중 한명인 쿠다셰프(Сергей В. Кудашев)에 따르면, 돌격대 원칙은 나폴레옹전쟁 당시 프랑스군이 적용했던 원칙이며, 혁명으로 러시아가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러시아 군대가 활기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전선의 모든 부대에 특별 돌격대를 편성해야 했다. 쿠다셰프는 또한 돌격전술이 위험한 만큼 돌격대원에게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ntseva, “The Russian Army’s Shock Formations in 1917”, p.52.

63) Viktor Shklovsky, *A Sentimental Journey: Memoirs, 1917–1922*(trans. Richard Sheld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0), p.30.

64) 군관계자 중에서 돌격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어, 브루실로프 장군

아닌 돌격대를 활용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케렌스키를 포함해 임시정부 각료들이 돌격대를 언급할 때 주로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정신적 요소가 강조되었다는 지점에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 돌격대로 쓰일 수 있었던 여지가 존재했다.

혁명대대 편성이 공식화 되면서 다양한 집단이 지원했고 이 중에 상이군인, 비(非)러시아계 민족, 전쟁포로 그리고 여성도 있었다.⁶⁵⁾ 혁명대대는 전방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투부대로 분류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전투 그 자체보다 사기를 북돋는 역할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여성의 눈은 매섭고 마음은 따뜻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성이 전선에 파견되면 “아픈” 러시아 군대는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⁶⁶⁾ 보치카료바 역시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 편성 과정에서 남녀의 전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가 두마 의장 미하일 로잔코(Михаил В. Родзянко)가 보치카료바 처럼 훌륭한 여성군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성결사대 편성이 힘들다고 말하자 보치카료바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남성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5월 21일에 마린스키 극장에서 열린 여성대대 입대홍보 연설에서 “충성심과 순수한 영혼과 큰 뜻을 가진 여성이 이 중대한 시점에 남성들이 자신의 의

은 돌격대의 열렬한 주창자였다. 브루실로프는 부대원의 정치성과 비전문성을 근거로 혁명대대에 반대했던 총사령관 미하일 알렉세프(Михаил В. Алексеев)를 대신해 총사령관 자리에 오른 뒤에 광범위하게 혁명대대를 편성했다. 브루실로프에 따르면 혁명대대의 1차 목표는 “군대에 혁명정신과 공격정신을 불러 일으키며 [...] 혁명대대의 선례로 동요하고 있는 병사들을 감복시키는 것”이었다. “Report of General Brusilov on the Organization of Shock Battalions,” *The Russian Provisional Government 1917: Documents, Vol. 2*(eds., Robert P. Browder, Alexander F. Kerensk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1), p.932; Dowling, *The Brusilov Offensive*, xvii-xviii; Allan Wildman, *The End of the Russian Imperial Army, Vol. 2*(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79.

65)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65.

66) Wood, *The Baba and the Comrade*, p.4.

무를 깨닫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⁶⁷⁾ 남성에게 수치를 주어 그들이 본래의 젠더 의무, 즉 조국을 방어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만든다는 발상은 영국의 ‘흰 깃털 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상황 덕분에 다른 교전국의 여성과 달리 러시아 여성은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케렌스키는 여성부대 편성을 5월 31일에 승인했고, 이 사안을 페트로그라드 군관구 최고사령부와 육군 작전참모 주요부서의 동원분과(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ГУГШ)에서 다루도록 명령했다. 페트로그라드 군관구 최고사령관인 표트르 폴롭초프(Пётр А. Половцов)장군은 볼린스키 연대의 하급장교 25명을 포함해 병영, 군복, 군장비, 무기를 여성대대에 지급하기로 했다.⁶⁸⁾ 신병 등록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여성대대 자원할 수 있는 여성은 18세 이상으로 건강하고 임신하지 않아야 했다. 일단 의학검진을 받고 자원병이 된 여성은 보치카료바의 엄한 규율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이 조건에 따라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에 입대할 여성은 약 2,000명이었고, 이들의 사회배경은 매우 다양했다. 귀족 가문의 타투예바 여공(女公)과 흑해함대에서 사령관 니콜라이 스크리들로프(Николай Скрыдлов) 제독의 딸인 막달레나 스크리들로바(Магдалена Скрыдлова)도 여성대대에 입대했다.⁶⁹⁾ 학생과 지식인계급 출신 여성도 다수 입대했으며 심지어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가도 군문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지원병 대다수는 공장노동자, 하녀, 농민 등 노동계급 출신이었다.⁷⁰⁾ 여러 사회 계급 출신의 여성이 한 데 뒤섞여

67) Botchkareva, *Yashka*, p.154, 159.

68) *Ibid.*, p.162.

69) *Ibid.*, p.199.

70) 여성대대원의 입대 동기는 제1 러시아 여성대대의 성격과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이해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성대대에 끝까지 남은 대원 대다수가 노동계급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국심’ 같은 정신적 요소보다 물질적

있다는 사실이 대대에 민주적 성격을 부여했다. 여성대원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한 병영을 사용하고 같은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유명한 부자 가문 출신 소녀와 숙녀는 자기 요리사 또는 하녀와 한 대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⁷¹⁾

그러나 다양한 출신 성분 때문에 부대 자체가 민주적 성격을 띠었던 것과 상반되게 부대 운용 자체는 혁명 이전의 비민주적 방식을 따랐다. 이는 명령1호가 러시아 군대를 망쳐놓았다고 굳게 믿었던 보치카료바가 러시아 제국군 훈련 방식을 고수한 데에서 비롯하였다. 여성 대원은 오전 5시에 기상한 뒤 아침 예배와 식사를 하고 8시에 집합해 오전 11시까지 집중 군사 훈련을 받았다. 11시에 점심 식사 겸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군사훈련을 시작해 오후 9시까지 훈련이 계속되었다. 군사 훈련의 내용은 육체 훈련, 행군, 백병전 연습, 소총 훈련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치카료바 자신이 군사 훈련의 모든 측면을 감독했다. 보치카료바는 혹독한 군사 훈련을 통해 여성대원을 ‘완전한 군인’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보치카료바가 보기에 여성은 ‘더 약한 성별’이기 때문에 군인이 되려면 대원 개개인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야 했다. 보치카료바는 자원병들에게 하대하는 호칭인 “-티(Ты)”를 사용했으며 규율 위반자에게 체형(體刑)을 가했다. 부대 내 병사 위원회 설치도 금지되었다.⁷²⁾

보치카료바의 이러한 부대운영방식은 내부 분열로 이어졌다. 먼저 보치카료바는 부적절한 인자에게 강제 제대를 명령했다. 부대 편성 둘째 날에만 교관에게 새롱거리던 여성 50명이 군복을 벗었다. 어떤 자원병들은 혹독한 군사훈련과 지휘관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

요소가 입대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설명은 최지은, 『제1차 세계대전기 러시아 여성결사대대: 근대국가와 여성의 군사적 활용』(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32쪽을 보라.

71) Борис Солоневич, *женщина с винтовкой: исторический роман*(Буэнос-Ай рес, 1955), стр. 54.

72) Botchkareva, *Yashka*, p.161, 164, 165.

진해서 부대를 떠났다. 게다가 지식인 계급 또는 학생 출신 자원병들은 보치카료바가 민주적 군사 관행을 거부한 데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폴롭초프와 케렌스키 역시 부대 내에 대의기구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고, 병사위원회 설치를 명령했지만 이 고집 센 고참 여성군인을 막을 수 없었다.⁷³⁾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남아있던 부대원의 절반 정도가 여성대대를 떠났고, 결국 300명 정도가 끝까지 보치카료바에게 충성을 바쳤다. 여성 결사대원으로 후일 회고록을 남긴 니나 크릴로바에 따르면, 남은 자원병 대부분이 “보치카료바와 비슷한 얼굴과 체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 출신임을 의심할 수 없”었다.⁷⁴⁾ 보치카료바는 더 많은 병사로 이루어진 부대보다 더 훌륭한 병사로 이루어진 부대가 낫다고 생각한 탓에 분열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6월 공세를 위해 남은 자원병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훈련 시켰다.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가 훌륭히 전투를 치르면서 보치카료바의 방식이 나름대로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성대대는 제10군 시베리아 제1군단 132보병사단의 제525보병연대에 배속되어 벨라루스 동북쪽에 있는 몰로데치노(Молодечно)로 7월 초에 파견되었다. 시베리아 제1군단은 독일군에 맞서 7월 6일에 공세를 개시했다. 제132보병사단의 임무는 제1사단이 공세에 나서는 동안 노보스파스키 숲(Новоспасский лес)의 진지를 강화하고 수비하는 것이었다.⁷⁵⁾ 7월 9일 새벽에 공격명령을 받은 남성병사들이 머뭇거리자 여성군인들은 남성병사를 고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호 밖으로 전진했다. 제525연대 지휘관이 상부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여성대대원은 “전투에서 영웅답게 행동했다. 독일군의 공격을 받자 알아서 반격을 서둘렀다.”⁷⁶⁾

73) *Ibid.*, p.165, 169-76.

74) Солонечич, *женщина с винтовкой*, стр. 54.

75)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p.107~109.

76) *Ibid.*, p.111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성부대의 임무가 전투보다는 프로파간다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는 실전에서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전방과 후방에서 전쟁여론이 악화되던 시기에 여성결사대대뿐만 아니라 다른 돌격대를 통해 러시아 군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성부대에게 더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여성을 전선으로 보낸다는 과격한 발상이 여성부대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에 의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가 전선으로 파병되기 전에 케렌스키의 부탁으로 친 정부시위에 참여했었다는 사실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낳았다. 사회주의 계열 남성들이 대체로 여성부대에 반대했고 특히 볼셰비키는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가 편성되었던 당일부터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다. 볼셰비키가 오직 정치적 이유에서 여성부대에 반대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확실한 점은 볼셰비키가 젠더질서를 이용해 여성부대를 효과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볼셰비키 활동가는 지역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 타락한 군국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본성에 따라 그리고 모성을 부여 받은 존재로서 반드시 인류의 생산자라는 파괴의 반대자가 되어야 합니다.⁷⁷⁾

이렇게 볼셰비키를 비롯한 반(反)임시정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과 별개로 군당국도 여성부대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10월혁명 이전부터 여성부대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었다.

더 나아가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가 맡은 프로파간다라는 임무는 부대의 존립문제만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또한 여성대대 자체의 모순된 정체성을 암시했다. 여성부대는 돌격대로서 다른 혁명부대와 똑

77) *Ibid.*, p.173에서 재인용.

같이 전투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되어 적군을 살상하는 전투부대였다. 그럼에도 ‘남성의 젠더 의무를 일깨운다’는 프로파간다가 여성돌격대와 다른 돌격대를 구분하는 특징이었다. 그 결과, 여성대대는 전투부대이면서 동시에 비(非)전투부대였고 이 모순된 정체성은 부대 규율에서 잘 드러났다. 여성대대가 전투부대일 때 여성대원은 ‘여성’이 아닌 ‘군인’이었으나, 여성대대가 비전투부대일 때 ‘군인’이라는 직업정체성보다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이 더 강조되었다. 예컨대, 페트로그라드 여성 군사분견대 조직 위원회가 제 1러시아 여성결사대대를 위해 제시한 규율의 제 7항은 “쾌활, 행복, 친절, 환대, 성실, 청결”을 여성군인에게 요구했으며,⁷⁸⁾ 여성군인은 여성으로서 품위를 지킬 것을 요구 받는 한편 여성성을 제거할 것을 끊임없이 명령 받았다.⁷⁹⁾ 이러한 모순이 드러내는 바는 분명했다. 일단 남성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여성은 원래의 자신의 젠더 역할로 돌아갈 터였다. 여성 전투부대의 존재는 젠더 질서를 파괴했지만 알갭게도 그 존재 자체가 젠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임시방편용 군사적 활용 수단이었던 여성결사대대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했던 실패했던 결과적으로 해산될 운명이었다.

4. 결론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 여성 노동자를 연구한 역사가 유테 다니엘(Ute Daniel)에 따르면, 총력전이나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할 때 아직 정치적으로 발달하지 않은(proto-political) 일상의 생각

78) Laurie S.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78.

79) Beatty, *The Red Heart of Russia*, p.103.

및 행동과 “진정한” 정치 사이에 존재하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일상의 삶이 위협받는 시기에 사람들이 행하는 대화와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떤 추상적 의미를 지니기보다 그 자체로 정치적 쟁점이 된다.⁸⁰⁾ 더욱이 모든 국민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총력전 시대에 개인 또는 집단이 내놓는 일상의 쟁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위력을 지녔고, 이는 특히 혁명을 경험한 러시아에서 그러했다.

러시아에서 정치화된 일상을 경험한 여러 집단 중 하나가 ‘여성’이었다. 전쟁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러시아 여성은 노동 부문에서 양적·질적 변화를 겪었다. 노동계급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군수공장과 화학공장에 진출한 것은 아닐지라도 당대 지식인 계급 여성 몇몇이 그 의미를 파악했듯이, 러시아 여성의 전시 노동참여는 여성 참정권의 명분이 되기에 충분하였다.⁸¹⁾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후방에서의 노동 참여에 그치지 않고 군인이 되는 더 직접적인 전쟁 참여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다른 교전국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남장을 하고 입대한 여성부터 남편과 남자형제를 따라 전선으로 간 여성 그리고 간호사 복무를 하다 전투원으로 직무를 바꾼 여성까지 여러 여성군인의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게다가 2월 혁명 이후에는 혁명에 뒤이은 여러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인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가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여성 결사대대는 1917년 봄부터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편성된 돌격대 중 하나였지만 오직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전투 그 자체보다 프로파간다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한 부대였다. 즉, 남

80) Ute Daniel, *The War from Within: German Women in the First World War*(Washington D.C.: Berg, 1996), p.11.

81) Olga Shnyrova, “Feminism and Suffrage in Russia: Women, War and Revolution, 1914-1917”, *The Women’s Movement in Wartime: International Perspective, 1914-19*(eds., Alison S. Fell, Ingrid Sharp) (NY: Palgrave Macmillan, 2007), p.131.

자답게 제대로 싸우지 않는 전선의 남성 병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의 주요 임무였다.

이러한 여성부대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모순된 정체성을 낳았다.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는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부대이면서 프로파간다를 수행하는 비전투부대였다. 여성 결사대대를 이끈 유명한 고참 여성군인 마리아 보치카료바는 보통의 여성이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대다수 결사대대원들도 남성병사가 원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랐다.⁸²⁾ 따라서 실전에서 소기의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주요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여성대대는 이후 부대의 해체 위기에 맞서 자신의 존립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투원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이후 러시아 역사에서 잊히지 않았다. 여성 결사대대가 해산된 이후에 일부 여성군인은 백군과 적군(赤軍)에 가담해 군사 활동을 계속하기도 했다. 기존 질서의 복구를 꾀했던 백군보다 혁명 세력인 적군에 여성군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적군이 여성을 군사적으로 더 자주 동원했고, 적군 전체 병력의 2%에 달하는 50,000~70,000명의 여성이 적군에서 복무한 것으로 추정된다.⁸³⁾

러시아 내전 동안 볼셰비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성의 군사적 활용을 논하였고, 심지어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의무화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여성의 적극적 군사참여를 지지하던 인물 중 한 명은 노동자·농민군사교육기관(Всевобуц; всеобщее в оенное обучение)의 의장인 니콜라이 포드보이스키(Николай И. Подвойский)였다. 그는 여성에게 관리, 군사 보급, 위생, 통신, 총기 사용법을 가르쳐 여성이 '프롤레타리아 모국'방어에 참여하게 만들자고 제안했다.⁸⁴⁾ 내전이 끝나면서 여성의 군사적 동원에

82) Botchkareva, *Yashka*, pp.192~195.

83) П. М. Чирков, *Решение женского вопроса в СССР: 1917-1937 гг.* (М.: 1978), С. 155.

관련된 여러 방안이 현실화 되지 않았으나, 여성이 군사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은 이후 소련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총력전의 완성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 여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군사 부문에 참여하였고, 소련 당국 또한 여성을 대규모로 군사 분야에 동원하였다.⁸⁵⁾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정부가 전투병과에 동원한 여성군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기 여성결사대원들과 달리 정체성 갈등을 겪지 않은 채 전투임무에만 충실할 터였다.

[원고투고일: 2016.11.28, 심사수정일: 2017.2.19,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총력전, 제1차 세계대전, 여성군인, 러시아 여성

84) Wood, *The Baba and the Comrade*, pp.52~56.

85) 류한수, 「제2차 세계대전기 여성군인의 역할과 위상: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비교 연구」, 141~144쪽.

<ABSTRACT>

Russian Women Partaking in the Military field during World War I: Individual Women Soldiers and the First Women's Battalion of Death

Choe, Ji-Eun

This article focuses on Russian women soldiers during World War I in terms of total war and the Russian February Revolution. The War took on a new aspect in 1914 as a result of two paradigm shifts: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ll the belligerent suffered setbacks stemming from this new conflict. For Russia, one of hardships was the deficiency of workers, many of whom had been drafted into the army. Inevitably, an increasing number of Russian women were employed in various sectors of industry.

The expanding role of Russian women was not limited to industry,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women in the military had already increased under the conditions of total war, but the military activity of Russian women entered a new phase after the February Revolution. Though the first all-female combat unit was established under the propaganda slogans of liberation and equality, it is more appropriate to locate its origins in the situation fac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Russian army. The First Russian Women's Battalion of Death was one of several measures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ok to carry out the June Offensive, which it hoped would reverse its military and political losses.

The world saw the first female combat unit on May of 1917. In addition to its combat role, the battalion had the propagandistic mission of shaming male soldiers who were refusing to perform their duty. Though women soldiers seemed like a cost-effective way to wage war, all the battalion's efforts were in vain when it confronted with reluctant mass soldiers. The military leadership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ast doubt on the value of all-female combat units. Thus, the women's battalion was destined

to be disband even before Red October whether it would have proved women could be useful in combat.

Key words : total war, World War I, women soldiers, Russian women

